

새와 달과 별 아래 스치는 오름 있는 풍경과 새해를

포도갤러리 백광익 초대전
'오름 위에 부는 바람' 주제
"자연 순환 속 고요히 좌정"
신작 중심 대작서 소품까지

을 펼쳐놓고 있다. 백 작가에게 오름은 제주의 다른 말이다. 작가는 오름을 배경으로 그 위를 채우는 바람의 흐름, 별빛, 나무 등을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대작에서 소품까지 백 작가의 식지 않는 작업 열정을 여러 낫갈 평면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시는 2월 17일까지 계속된다.

서귀포시 안덕면 포도호텔에 들어선 포도갤러리가 '오름 위에 부는 바람'이란 제목으로 제주 중진 백광익 작가 초대전을 열고 있다.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시작된 이번 초대전에는 백광익 작가의 2020년 신작을 중심으로 오름 소재 작

박영택 평론가는 그의 작품을 두고 '제주 자연에 대한 정서적 체험의 형상화'라고 칭했다. 박 평론가는 "제주 자연속에 사는 사람들, 나무와 새와 별, 달과 함께 생을 보내는 이들, 그것들이 내는 소리를 듣는 이들, 이 거대한 자연의 순환 속에서



백광익의 '오름 위에 부는 바람' (2020).

고요히 좌정하며 명상에 잠긴 듯한 사람의 모습 등은 마치 전통적인 동양화의 인물 산수화가 추구했던 이념을 떠올려준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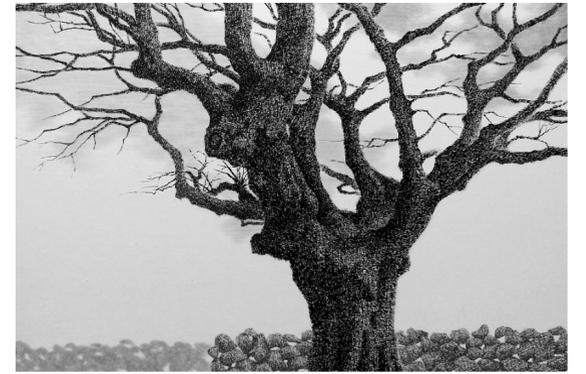
백 작가는 지난해 한라일보 갤러리 이디 초대전을 비롯 그동안 한국, 일

본,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세계 각지에서 37회 개인전을 열었다. 현재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에 자리 잡은 제주국제예술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고 동아육선 전속작가로 활동 중이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갤러리ED 시상전 (8)이창희의 '제주나무와 돌담'

수만 번 마른 붓질로 그린 돌의 세월



그는 10년 넘게 나무와 돌을 붙잡았다. 그러다 제주를 만났다. 2007년부터 제주를 오갔고 2012년 제주대에 부임하면서 이 섬의 돌과 나무가 온전히 그의 화면 안에 깃든다. 제주대 미술학과 이창희 교수가.

지금까지 서른한 차례 개인전을 이어온 그는 10년 전부터 제주의 삶과 풍경을 꺼안았다. '제주도를 보다', '돌담', '제주를 마음에 담다', '제주와 어우러지다', '돌담-숲', '돌담 너머'란 주제로 제주 안팎에서 작품을 발표했다.

갤러리 이디의 제주 중진 작가 11인 초대전에도 장지에 수묵으로 형상화한 제주의 돌과 나무가 있다. 2015년 작품인 '제주나무와 돌담', '제주나무', '제주목' 세 점이다. 검은 빛 돌담과 팽나무(꼭상)가 실경으로 의외로 서서 여백을 채우고도 남는다.

이 작가가 "거미줄처럼 나뭇가지들이 촘촘히 얽혀있다"고 표현한 팽나무는 비바람을 견디고 시린 눈을 맞으며 살아남은 인고의

모습 그대로다. 구부러지고 상처 난 몸체를 드러낸 채 때때로 마을 어귀에서 지친 우리를 맞는다. 돌

담도 다르지 않다. '돌챙이'들이 잡았다. 그러다 제주를 만났다. 2007년부터 제주를 오갔고 2012년 제주대에 부임하면서 이 섬의 돌과 나무가 온전히 그의 화면 안에 깃든다. 제주대 미술학과 이창희 교수가.

특히 그는 돌에 매료되었다고 털어놓는다. 다른 자연물이 늘 변하며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달리 돌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변치않는 표정을 짓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근본을 잃지 않는 묵직함"으로 다가왔다고 했다.

드로잉처럼 보이는 그의 작업

은 수묵을 사용한 갈필법(渴筆法)과 적묵법(積墨法)으로 탄생했다. 갈필법은 마른 붓질로 사물을 그려내는 것을 일컫는다. 한 획 한 획이 모여 만 획을 이루듯 수만 번을 붓질해 중첩하며 형상을 만들어 가는 방식이 적묵법이다. 돌과 나무가 수천 년의 긴 시간을 건너왔듯, 작가는 그만큼 수량의 붓놀림으로 대상을 포착한다.

이 교수는 홍익대와 동대학원 동양화과를 졸업했다. 2003년 대한민국미술대전 구상 부문 대상 수상자다.

전선희기자

도립예술단 실기 평정 기량 높일 자극제 되나

지난달 5개 예술단 잇단 평가
기준 미달 단원 총 6명 발생

단원들 조례 개정 시 건의
올해부터는 2년마다 평정

최근 5개 제주도립예술단의 예술단원 실기 평정에서 일부 징계 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단원은 6개월 이내에 재평정을 받게 된다.

현재 제주도는 도립무용단, 제주교향악단, 제주합창단, 서귀포관악

단, 서귀포합창단 등 5개 도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다. 도립무용단은 제주도문화진흥원, 제주예술단으로 묶인 제주교향악단과 제주합창단은 제주시, 서귀포예술단인 서귀포관악단과 서귀포합창단은 서귀포시가 각각 관리를 맡고 있다.

실기 평정은 제주도립예술단 조례에 따른 것이다. 운영기관의 장은 예술단원에 대해 위촉기간 동안 외부 전형 위원을 꾸려 실기 평정을 실시하고 예술감독·안무자, 지휘자와 협의해 재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근거해 5개 도립예술단은 작

년 12월 잇따라 실기 평정에 나섰다. 그 결과 도립무용단을 제외한 제주 예술단과 서귀포예술단에서 일정 기준에 미달해 징계를 받고 재평정을 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재평정 대상 예술단원은 총 6명이다.

도립예술단 운영 규정엔 실기 평정에서 100점 만점 중 70점 이하를 받으면 징계를 통해 출연정지나 감봉, 견책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당 단원은 6개월 이내에 재평정을 실시해 기량 향상이 없으면 해촉할 수 있다.

이번 결과가 향후 예술단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은다. 5개 예술단을 합쳐 한 해 15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도립예술단의 책임을 강조해 단원들의 실력을 높이고 예술단 발전을 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지는 점이다.

그동안 실기 평정은 예술단원들에게 민감한 사안 중 하나였다. 실제 일부 예술단에선 실기 평정에 따라 해촉된 일이 있었고, 결과를 두고 반발하는 경우도 벌어졌다. 지난해 도립예술단 조례 개정에서 예술단원들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실기 평정 시행 기간이 종전 1년에서 격년으로 늘어난 배경도 거기에 있다. 제주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는 도립예술단원 실기 평정을 매 짝수연도 12월에 치르기로 했다.

전선희기자

사계의 순환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

고권 개인전 '계절들'
스페이스업 당선 초대

제주와 서울을 오가며 활동하는 고권 작가에게 자연은 맑은 듯 다른 인상을 풍겼다. 남산 자락에서 보이는 북한산과 관악산이 남성이라면, 완만하게 태평양을 내려다보는 한라산은 여성의 모습으로 느껴졌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계절의 변화를 고스란히 보여줬다. 사계절의 이김없는 순환은 우리네 삶을 은유하는 듯 했다.

그가 서울 스페이스업(서초구 방

배로 42길 39 1층) 2021 공모 당선 초대전에서 그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계절들(Seasons)'을 주제로 이달 12일부터 23일까지 개인전을 펼친다.

그는 자연을 의인화해 그것이 지닌 섬세함과 신비함을 작업에 드러낸다. 인간의 감정이 떠오르는 변화무쌍한 구름, 붉게 타는 바다 위 꽃과 나무들이 있다. 2008년부터 진행해온 '주운날' 연작에선 두터운 옷을 입은 소년과 파충류의 공존을 통해 세파를 견디는 삶의 긍정을 말한다.

고 작가는 "자연과 삶에 대한 사랑



고권의 '돼지를 안고 가는 소녀'.

을 계속 그려가고 싶다"고 했다. 전시장 연락처 02)540-1212. 전선희기자

도립미술관 내부 중앙정원 서성봉 설치전 '힐링 필드'

제주도립미술관이 미술관 내부 중앙정원을 활용해 서성봉 작가의 설치 작품으로 '힐링 필드(healing field)'전을 열고 있다.

6월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미술관을 상처 입은 몸과 마음을 치유함으로써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자연물과 인공물의 조화를 추구해 온 서 작가는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을 산다는 한라산 구상나무의 열매에서 착상해 신비롭고 무한한 생명의 잉태를 표현했다. 문의 710-4273. 전선희기자

공립박물관 어린이 자료집 영주심경·정의현성 등 소재

제주 공립박물관들이 최근 어린이용 자료집을 잇따라 내놓았다.

제주교육박물관은 고재만 작가의 그림과 김신자 시인의 글로 엮은 '제

주를 색칠하자'를 펴냈다. 영주심경과 제주 문화 상징 10개를 담아 색연필이나 수채물감으로 채색하고 제주어를 접할 수 있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은 '제주의 민속과 자연을 품은 예코뮤지엄, 보물섬 정의현성'을 묶었다. 정의현성 성내 걷기 코스 그림지도 등을 소개했다. 전선희기자

축
CONGRATULATIONS

당 선

제주시육상연맹 회장



변영진
(녹동대원 대표)

통합 제2대 제주시육상연맹 회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한림공업고등학교 전자과총동문회 회원일동

축
CONGRATULATIONS

당 선

제주시육상연맹 회장



변영진
(녹동대원 대표)

통합 제2대 제주시육상연맹 회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제주동문회
회장 김재우 외 회원일동

축
CONGRATULATIONS

승 진

총 경



양수진
(장인 : 故 고두원 · 정모 : 송옥자 · 처수 : 고평열)

제주경찰청 총경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귀2리 처가 일동

축
CONGRATULATIONS

당 선

제23대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장



장현

제23대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한림읍 상대리 리민일동